



▲김기환 분회장(左), 이상천 이사(右)

유통 구조 단일화를 주력 사업으로

취재: 김용화 기자

서울근교에 위치한 김포육계분회 (분회장: 김기환 사장)까지는 신촌에서 직행버스를 40여분 남짓한 거리에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을 포함하는 이곳 김포육계분회는 생산물의 대부분을 서울로 직송하는 곳이기도 하다.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

“대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다보니 가격변동에 아주 예민한 편입니다. 그리고 육계생산자들도 매우 정보전략에 민감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자칫 인상을 흐리게 하면 단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김분회장의 말대로 어수룩한데가 없다는 말이 될런지도 모른다. 그럴 법도 한 것이 문화의 최첨단을 누리는 수도권과 맞대고 있으니 저마다 정보에 능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 유가 타지역보다 협회를 통한 권익 보호 단체를 구성하는데 오히려 소홀히 했던 것이라는 김포육계분회 회원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현재 김포지역에는 200만수가 웃돌게 육계를 생산하는 곳이다. 초대 분회장이었던 이종렬사장이 심혈을 기울여 1986년 4월 20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그해 9월에 본회에 분회설립신청을 하여 87년 3월 18일 현판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주로 1만~2만수 규모가 주를 이루는 생산자들로 뭉쳐진 이곳은 남다른 협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가입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정보분석으로 수익증대 최우선

생산물은 1일 2만수정도가 자체지역 소비이고 나머지는 서울·인천·부천으로 출하된다.

“이곳은 지역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협회란 본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협회와 조합의 특수성을

김포육계분회회원명단

성명	직책	전화번호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종열	고문	87-2583	양창석	회원	82-1644
신덕균	고문	(농)87-0481 자 87-2997	최병홍	회원	988-3033
김기환	회장	(농)82-0267 자 2-3429	한충희	회원	82-1035
고상현	부회장	2-5959	강근호	회원	82-6120
김양옥	부회장	2-4948	안춘호	회원	87-1049
우상천	이사	2-2753	이한주	회원	2-2803
백명기	이사	2-4251	홍종무	회원	2-4831
홍순원	이사	988-2570	신수현	회원	82-0247
조규택	감사	988-3993	원중훈	회원	87-5633
양서욱	감사	2-5811	황백휴	회원	87-2386
이강현	회원	988-2569	심성택	회원	82-1085

이해하지 못하여 가입하면 무슨 거창한 공동사업이라도 하여 많은 이익을 얻는게 아니냐 하여 관심을 보인다 그렇지 못하면 발길을 돌리는 사람을 볼때 안타깝습니다. 사실 권익보호란 금방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닙니다. 산업의 영속성을 염두하여 우리가 펼치는 사업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서로가 모여 공동대처를 하는 곳이 협회가 아니겠습니까?”

닭소개 사업으로 기금마련

다른 분회와 마찬가지로 참여의식이 없는 생산자가 많아 분회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다. 이점을 중시해서 자체기금을 모아야 분회운영에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여 실시한 닭소개사업은 매우 활기를 띠어 소개 전담업무를 맡은 아가씨만도 2명이 있을 정도다. 수수료는 수당 10원인데 회원이건 비회원이건 신청만하면 판매를 알선해주고 있다. 회원이 20여명 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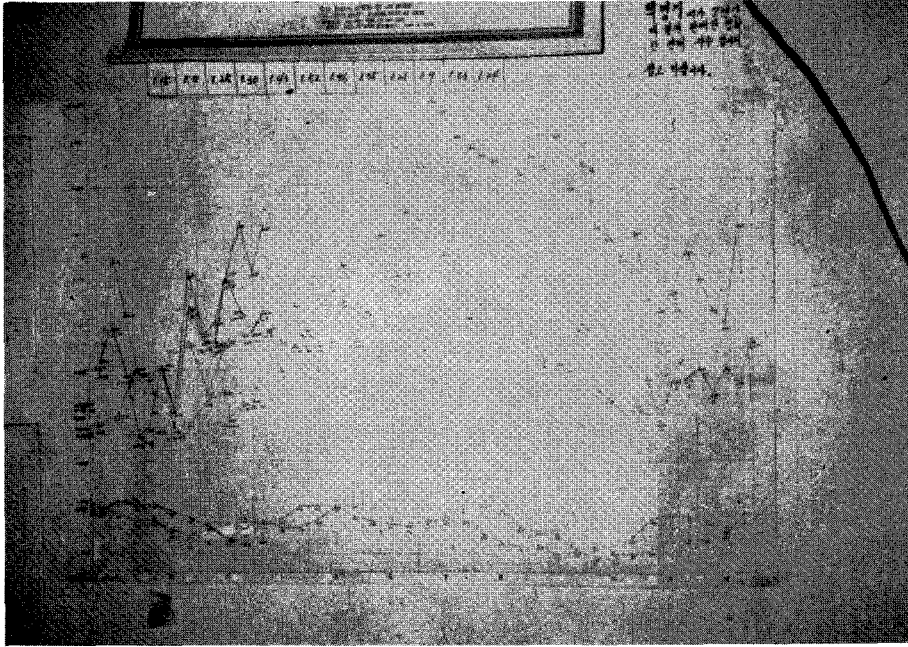
에 되지 않아 아예 범양계생산자를 위한 편의단체로 전환하여 유통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회원들은 대부분 상호 정보교환이 원활하여 선거철을 겨냥한 무분별한 생산과잉시에도 밀리는 닭이 없을 정도로 단합이 잘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도 유통질서가 문란하여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간상인의 농간이 심한 편이다.

제도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해

“우리가 생산한 산물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양은 판매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유통구조가 무질서하여 억울하게 당하기가 일쑤이죠. 이것을 협회가 앞장서 조직을 강화하여 시정해 나가야 생산자들도 협회의 필요성을 빨리 인식하여 가입자가 늘고 회원이 많으면 그만큼 힘이 강해질거라고 봅니다.”

3~4개소의 중간 소개소가 있는 실정인데 이들로 하여금 당하는 피



◀ 정확한 정보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백명기 사장이 7년간의 경기를 분석한 통계자료)

“유통구조개선은 단시일 내에 이룩되는것이 아닌만큼 서서히 중간상인들과 유대 관계를 유지해 나가다가 통합해 나갈 생각입니다.”

해는 심각할 정도라고 한다. 산물이 약간만 체화될 기미를 보이면 일시에 가격이 폭락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참여

“단시일내에 유통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보지않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합심해서 유통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 김포분회의 추진사업이라 할 수 있지요. 우선 일반 중계상인과 연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거래를 해치는 독자적 행동에 차츰

제동을 걸어가며 유대관계를 맺다가 통합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회원들이 적극 밀어주고 있으니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닭소개사업에서 병아리 입추 알선까지 계획하여 기금조성에 주력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유대관계 맺어 통합추진

어려운 일임을 알면서도 과감한 시도가 계획되는 것은 김포육계분회의 회원들이 유통문제에 그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이유에서 비롯

된다. 그러나 유통부문은 일부 생산자들이 노력한다고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늘 정책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성과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회원 모두는 불행시 정부에서 수매를 통한 일시적인 대응책 보다는 가공산업의 육성을 통한 상품개발의 확대로 현재 저중량 육계사육 방식에서 벗어나 사료효율이 좋은 대닭(2kg 이상) 생산을 육성해서 사료에서 낭비되는 외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생단속을 강화도 계장의 운영의 묘를 살려 지역단위별로 출하를 집중시켜 유통구조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말들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김기환분회장을 중심으로 똘똘뭉친 김포육계분회의 선전을 기대하며, 나아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육계산업의 유통문제가 머지않아 해결되어 나가리라고 본다.

양기식